

영원한 도움

소식지 Vol.6

SISTERS OF OUR LADY OF PERPETUAL HELP



VOL.6

발행일 2026년 6월 1일

발행인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발행처 서울시 성북구 솔샘로 15라길 2-18

전화 (02) 2171-1611

메일 solph70@hanmail.net

홈페이지 <https://www.solph.or.kr>

인쇄처 세가출판사

비매품

03 권두언 | 나도 나무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마음을 드높이

06 교회와 함께 | 시노달리타스 교회를 위하여

10 말씀과 함께 | 마르타와 마리아

14 추모의 글 | 故 김수창 야고보 신부님과의
첫 만남, 그리고 마지막 만남

18 책과 함께 | 《곰스크로 가는 기차》

20 문화 속으로 | 영화 〈더 파더〉

모든 이에게 모든 것

24 선교 화보 | 카자흐스탄

26 선교 이야기 |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32 선교 체험 | 버티는 삶, 살아내는 삶
희망

36 선교지 소식 | 필리핀 · 베트남 · 페루

44 사도직 이야기 | 요셉의원/사회사목 사도직

한마음 한뜻

52 수도회 소식

56 성모자매회 소식

62 수도원 체험 | 말씀, 침묵, 기도, 찬미와 영혼의 쉼

64 후원자 명단

66 국내외 선교지

나도 나무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무엇보다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그리고 삽입된 그림들이 예뻐서 골라 든 책입니다.

다 읽고 나니 다른 이들과 어울려 사는 법까지 가르쳐 주어 더 고마운 책,

《나무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아멜리에북스 펴냄)》입니다.

어떤 나무는 햇빛이 가려지는 위험까지 감수하며 바짝 모여서 자라는데,

흙 속에 사는 균류의 도움으로 나무뿌리가 서로 긴밀하게 이어져 영양분을

나누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나무는 어디서든 몸을 적도를 향해 기울여 자라는데,

위도에 따라 잎이 햇빛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푸르름을 한껏 자랑하는 나무들이 친구 하자며 달려드는 계절을 보내며,

나무 한 그루의 사연 정도는 알고 지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다 보면 자라면서 꺾이고 손상된 부분을 고치기 위해 공을 들이는 대신 건강한 조직까지

피해가 번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내 삶의 마당을 지킬 줄 아는 법을 배울 필요도 있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화마가 지나가도 살아남을 수 있는 십자가의 지혜를 깨우침으로써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하며 기도하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설립 100주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우리 수도회로서

무엇을 떨구하고 무엇을 남길 것인지 자주 묵상하게 되는 요즘, 저는 개버즘단풍나무를

새롭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씨앗을 작은 헬리콥터처럼 만드는 법을 터득해서

부모 나무의 그늘을 떠나 멀리 새로운 터전까지 찾아 날아간다고 합니다. 선교 수도회로서

우리의 씨앗은 어떤 모양을 하고 날아가면 좋을지 행복한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무가 되고 싶으신가요? 저마다를 닮은 우리의 나무가 협력과 연대로

울창한 숲을 일구어 우리의 내일 또한 아름다운 찬미가로 채워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음을 드높이

하느님 백성 전체가 질서 안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함께 걸어가도록 초대받았다.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시노달리타스〉 중에서



페루 전통 테라코타 공예품



시노달리타스 교회를 위하여

글 | 이제희 제히데레사 수녀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시노달리타스〉(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2019년)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노달리타스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성찰해 보았다. 본문에 나오는 () 안의 숫자는 문헌의 조항을 가리킨다.

‘창조적 충실성’ 안에 ‘육화’되기

시노달리타스 교회와 관련하여 자주 등장하는 말 중 하나가 ‘창조적 충실성’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 예수님의 복음으로부터 유래하며 오늘날 역사 안에서 거룩한 성전에 대한 창조적 충실성 안에 육화되어야 하는 교회의 모습을 시노달리타스가 표현한다는 점을 강조하신다”(9항).

‘창조적 충실성’은 원천(예수님의 복음)과 역사성 둘 중 어느 하나도 배제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복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곧 교회의

뿌리, 원천이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이 원천에 충실해야 합니다. 동시에 교회는 역사적 존재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자 불러 모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세상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해 왔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역사적이고 인간적인 특성을 생각한다면 ‘창조성’에 방점이 찍히고, 예수님의 복음으로부터 유래했다는 교회의 신적 기원을 생각한다면 ‘충실성’에 방점이 찍힙니다. 이중 어느 한쪽으로 무게 중심이 기울면 교회는 균형을 잃게 되고, 균형을 잃은 발걸음은 뒤통거리다 결국 넘어집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뒤통거리며 위태로운 걸음을 걷고 있는 교회를 향해 시노달리타스 교회로 거듭나야만 제대로 걸어갈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창조적 충실성’ 안에 ‘육화’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무한’이 ‘유한’의 세계로 들어온 ‘육화’ 사건은 창조적 사랑의 절정이며 극치입니다.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 오실 만큼의 창조적 상상력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가?’ ‘온전한 인간이셨지만 하느님의 본질을 잃지 않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는 우리의 기원을 보존하며 그에 충실한가?’ 시노달리타스는 결국 이 두 가지 질문 안에 담긴 교회의 고민인 동시에 그 질문을 통해 드러나는 희망의 표현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은 정답을 찾아야 하는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이며 어떻게 활동하고 존재해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성찰적 질문입니다. 변화하는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징표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창조적 충실성 안에 육화’되는 일입니다. 그 육화는 시노달리타스를 통해 일어나고, 또 그 육화를 통해 시노달리타스가 이루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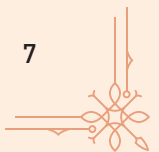
**‘질서’ 안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일치’를 향해 나아가기**

이와 같은 ‘창조적 충실성’은 질서 안



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발현되어야 합니다. 가톨릭 신앙은 언제나 신과 인간 사이의 조화, 균형, 질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둘의 일치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그 지향의 원동력은 인간 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에서 나옵니다.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사람이 되어 오신 하느님, 즉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하느님이며 온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가톨릭 신앙은 적당한 타협이나 본질을 흐리는 동일화, 관계를 단절시키는 분리적 사고를 경계합니다.

하느님 백성 전체가 질서 안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함께 걸어가도록 초대받았습니다. 그 소명은 구체적으로, ‘신앙 감각’, ‘식별’, ‘권위’가 “상호 복종과 상호 봉사의 논리”(18항) 안에서 순환적으로 각각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역할과 직무상의 차이





는 있으나 ‘하느님 백성’이라는 정체성 안에서 더 높거나 더 낮은 것, 더 크거나 더 작은 것,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모두에게 공동의 사명과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의 사명과 책임은 질서 안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일치를 향해 나아갑니다.

모두가 ‘하느님의 권위’에 참여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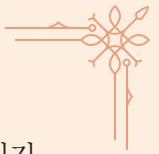
‘시노달리타스’는 구체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최종 결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문제와도 연관됩니다. 이때 민감하게 떠오르는 주제가 ‘권위’의 문제입니다. “각자의 역할과 기여하는 바는 서로 다르지만, 그 과정에서는 모든 이가 다 주인공들”(21항)이라면, ‘권위’도 동등하게 분배되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노달리타스’ 실현은 권위의 동등한 분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시노달리타스는 교회 전체와 교회 안의 모든 이가 주체임을 표현”(55항) 하지만, “시노달리타스 과정은 교계적으로 구조화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69항) 합니다. 그래서 “결정에 도달하는 과정(decision-making)’과 ‘결정을 내리는 것(decision-taking)’을 구별해야 한다. 이처럼 ‘결정을 내리는 것’은 사도성과 보편성의 보증인 주교의 권위

에 속한다. 결정에 도달하려는 작업은 시노달리타스의 과제이고,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는 직무적 책임이다”(69항)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는 모두가 참여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권은 교도권이 지닌다는 뜻입니다. 모두가 능동적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고 하면서, 최종 결정권은 주교에게 속한다는 말이 언뜻 모순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면 의문은 어느 정도 해결됩니다. 주교의 권위가 ‘신적 권위’라는 의미는, 주교 개인이 ‘신적’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 시작과 기원이 ‘신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권위가 예수의 복음에서 유래하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그러한 신적 권위를 부활하신 주님에게서 받게 되었으며 ... 하느님 백성의 모든 구성원은 세례를 통하여 이 신적 권위에 참여”(17항)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적 권위는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유일한 몸을 건설하시고자 하느님 백성 안에 베풀어 주시는 다수의 영적 선물들 또는 ‘은사들’을 통하여 표현”(18항) 됩니다. 권위는 교회에 봉사하도록 주어졌으며 그 원천이 하느님이기에 ‘신적’입니다. 그리고 그 신적 권위는 교계





제도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백성 안의 다양한 영적 선물과 은사를 통해서도 표현됩니다.

따라서 교회의 권위는 사도들만 독점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말하는 ‘신적 권위’는 일차적으로 사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지만, 그와 함께 하느님 백성 모든 구성원이 세례를 통하여 참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하느님의 것’이라면, 교회의 권위도 당연히 ‘하느님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도 시노달리타스가 “교계적 직무 자체를 이해하는 가장 적합한 해석의 틀을 제시한다”(9항)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어 듣고, 배우고, 대화하기

마지막으로 ‘시노달리타스’가 실제 삶에서 실현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시노달리타스의 삶은 제도적 구조들과 절차들을 통하여 표현”(76항) 된다고 했으니, 제도, 구조, 절차 등을 시노달리타스 정신에 맞게 마련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회심’입니다. “마음과 정신의 회심 없이는, 그리고 서로 함께 수락하고 경청하려는 수덕적(修德的) 훈련 없이는, 친

교의 외적 도구들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마음도 얼굴도 없는 단순한 가면이 되어 버릴 수도 있다”(107항).

회심과 함께 언급되는 것이 경청, 식별, 대화입니다. 먼저,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경청의 일차적 대상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말과 마음이겠지만, 더 정확히 말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유일하고 궁극적인 대상은 성령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는, 불고 싶은 데로 부는 성령의 모습으로 나의 마음, 다른 누군가의 마음, 나의 말과 생각, 다른 누군가의 말과 생각을 오가며 말씀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렇게 움직이시는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가르치려고만 한다거나, 견지해야 할 입장 또는 관철해야 할 주장이 있거나, 포기하고 싶지 않은 나의 뒤편이 있으면 듣기 어렵습니다. 여전히 듣기보다 말하기에 익숙하고, 배우기보다 가르치기에 익숙하고, 대화보다는 지시에 익숙한 ‘나’부터 회심하지 않으면, 함께 가는 길, ‘시노달리타스’는 아직도 너무 ‘먼 길’일 듯 합니다.

* 이번 호부터 필자가 변경되어 〈기도, 새 생명의 숨결〉 해설은 연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교회 문헌에 대한 성찰과 해설을 연재합니다.



마음!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

마르타와 마리아 루카 10,38-42; 요한 12,1-8 참조

글 | 양성부 허수진 수진루시아 수녀



작가 미상, 「마르타와 마리아를 방문하시다.」, 1560 - 1570년 무렵 작품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

사랑하는 이와 의 만남은 언제나 우리에게 삶의 생기와 기쁨을 준다. 예수님께서도 일생을 통해 많은 이들을 만나셨고, 주님을 만난 이들은 삶의 새로운 지평과 의미를 발견하고 구원을 체험했다. 그래서 베네딕토 16세 교황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윤리적 선택이나 고결한 생각의 결과가 아니라, 삶에 새로운 시야와 결정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한 사건, 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1항)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단지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 있었다고 모두가 다 구원을 체험한 것이 아님을 성경은 전하고 있다. 진정한 만남은 공간이 아니라 언제나 ‘마음’이라는 자리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즉, 예수님과 만남은 그분의 마음과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만났을 때 이루어진다.

성경은 예수님과 그런 사랑의 만남을 가꾸고 키워나간 이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많이 전해 준다. 그중에서 특히 ‘마르타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의 이야기는 루카복음서와 요한복음서 두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아마 예수님은 공생활 동안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베타니아의 라자로의 집(요한 12,1-8 참조)에 자주 들르셨고, 그의 두 여동생과도 잘 알고 지내셨던 것 같다. 두 자매는 서로의 성향과 역할이 달랐지만 각자가 지닌 고유한 모습으로 예수님과 특별한 만남을 가졌던 것은 분명하다.

따뜻한 밥으로 주님을 만나는 마르타

마르타는 언제나 주님을 위한 잔치에 ‘예수님의 시중을 드는’(루카 10,40; 요한 12,2 참조) 역할을 한다. 내가 사랑하는 이를 위해 음식을 준비한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다. 특히 그가 나의 음식을 먹고 ‘참 맛있다’라고 칭찬이라도 해 주면 나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서 더 맛있는 음식을 또 해 드리고 싶어 고심하게 된다. 그렇듯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무슨 음식을 좋아하시는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 또한 솜씨 좋은 마르타의 음식을 언제나 즐겨 드셨을 것이다. 요한복음 12장은 예루살렘 입성 전 마지막 밤을 베타니아에서 당신이 사랑하는 친구였던 라자로, 마르타, 마리아와 함



요아힘 뵈켈라에르,
「부엌 풍경, 배경에는 마르타와 마리아의 집에 계신 예수님이 보인다」,
1569년 작품

께 보내셨다고 전한다.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던 이들은 주님의 수난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을 분명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주님을 위해 마르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마지막으로 주님께 ‘따뜻한 밥’, 그분이 즐겨 드시던 그 음식을 해 드리는 것밖에는 없었다. 그렇게 마르타의 음식은 주님과 마르타의 사랑의 마음이 만나는 자리였다.

그분의 발치를 지키며 주님을 만나는 마리아

마리아 역시 “주님의 발치”(루카 10,39)라는 주님과 특별한 만남의 자리를 가지고 있었다. 사랑하는 이의 ‘발치’에 대한 소중한 체험이 나에게도 있다.

20여 년 전 내 아버지는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진단받았을 때 이미 말기라 아무런 치료도 해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아버지는 집에서 삶을 마무리하고 싶어 하셨다. 그런 아버지를 뵈러 본가에 가면 집안 살림과 병간호를 혼자서 감당하고 계신 어머니에게도 마음이 쓰여 청소라도 좀 하려고 하면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다.

“수녀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내 옆에 와서 앉아 있어.”

그런 아버지 발치에 앉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나는 다리를 주물러 드리곤 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수녀가 다리를 주무르면 이상하게 몸이 하나도 안 아프다.” 하시며 좋아하셨다. 그런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속으로 그냥 나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었겠지 하면서 내가 아버지를 위해 아무것도 해 드릴 것이 없다는 것이 슬프기만 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참이 지난 다음에야 어느 날 기도 안에서 깨닫게 되었다.

아버지 발치에 앉아 있던 나는 아버지에게 진정 위로와 기쁨이 되었다는 것을 말이다. 그것은 아버지를 향한 나의 사랑이 아니라,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무서운 고통으로 엄습하는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게 하는 그 사랑이었다.

주님을 만나는 내 마음의 자리

예수님의 죽음으로 향해가는 마지막 날들, 마르타와 마리아는 사랑하는 주님께 무엇이라도 해 드리고 싶었지만 정작 자신들이 아무것도 주님께 도움이 되어 드리지 못한다는 것에 무척 슬프고 괴로웠을 것이다. 예수님 역시 임박한 당신 수난과 죽음 앞에서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타의 따뜻한 밥상이 그리고 당신 발치에 앉아 있는 마리아의 현존이 주님께는 커다란 위로가 되셨으리라. 아마도 주님은 그런 그들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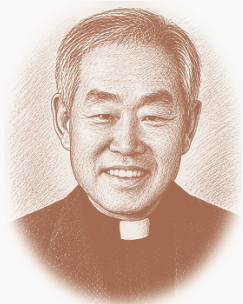
“마르타야! 마리아야! 너희가 ‘내 장례 날을 위하여’(요한 12,7) 준비해 준 따뜻한 밥상과 나의 발치에 쏟아부었던 기름, 거기에 담긴 너희의 마음을 내 수난의 날에 잊지 않고 기억하마. 그리고 참고 감사다.”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고유한 방식이 있듯이 주님과 나누는 사랑의 ‘빛깔’ 역시 다양하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은 이미 나의 일상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다.

6월 예수성심성월! 내 마음의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을 만나는 행복한 달이다.



안 스테인, 『마리아와 마르타의 집에 계신 예수님』, 1655년 작품



故 김수창 야고보 신부님과의 첫 만남, 그리고 마지막 만남

글 | 기록보존실 조예진 순선스텔라 수녀

지난 2월 23일 선종하신 선종하신 김수창 야고보 신부님과 우리 수도회의 인연은 1950년 12월 부산 피난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신부님은 우리 수도회 와타나베 스에코 파물라 수녀를 만나 그분의 도움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신부님이 우리 수도회에 대해 본격적인 애정과 연민을 갖기 시작한 때는 독일 유학 시절부터였을 겁니다. 우리 수도회는 1964년에 독일로 학생 지원자를 파견하여 간호학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명에 달하는 지원자들의 고해성사와 영적 지도를 담당할 사제가 필요했던 터라 당시 총원장이었던 파물라 수녀가 신부님께 독일 유학을 제안하면서 재독 지원자들의 고해성사 사제가 되어 주길 부탁드립니다. 신

부님은 1966년부터 1969년 귀국할 때까지 독일 여러 지역에 흩어져 간호학을 공부하는 지원자를 일일이 방문해 고해성사를 주셨습니다. 신부님이 지원자들이 살고 있던 독일 각지를 다 돌아온 거리는 무려 140.8km였습니다. 귀국 후 신부님이 우리 수도회 지도사제로 부임하신 것도 독일에서 보살폈던 지원자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자처하신 것이랍니다.



독일 유학 시절 간호학과 재학 중인 지원자들 및 병원 근무 중인 수녀들과 함께(1966~1969)

수도회 역사 기록과 보존에 힘써

지도사제로 부임하신 신부님은 창립자의 정신으로 돌아가라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에 따라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의 초창기 역사를 직접 연구해 수녀들에게 강의하셨고, 평양에서부터 발간되었던 회지 『Sursum Corda(마음을 드높이)』에 1969년부터 기고하시는 등 교육에 정성을 쏟으셨습니다. 가톨릭성서모임의 태동과 성장을 이끄셨으며, 1971년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수도회를 위해 평신도 단체인 성모자매회를 설립하도록 권유하셨습니다. 이때 설립한 성모자매회가 지금의 재속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종하실 때까지 온 마음을 다 기울이셨습니다.

또한 남하한 수녀들에게는 수도회의 역사를 후배들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며 각자의 자서전을 쓰게 하였고, 기록을 상세히 적을 수 있도록 작성 양식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남하한 선배 수녀들의 자서전은 지금까지 수도회 초창기 역사를 고증하고 전하는 소중한 자료입니다. 이렇게 신부님과 우리 수도회의 인연은 선종하실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신부님은 전례에 대한 애정과 역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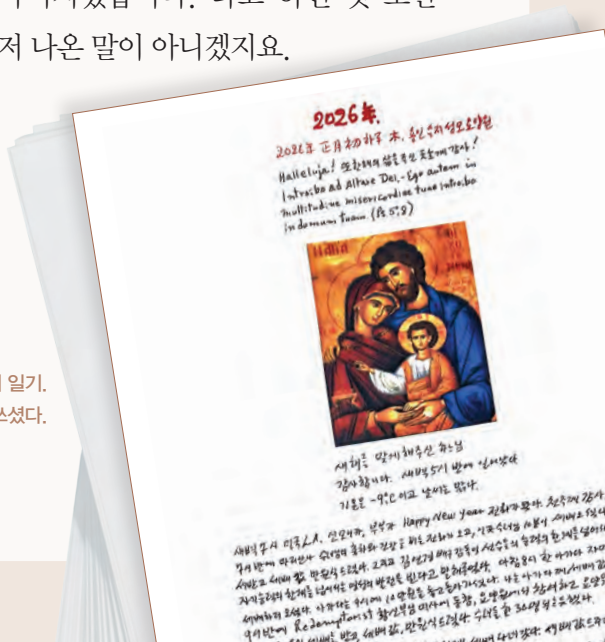
또 한해의 삶을 주신 하느님에 대한 감사로 시작하는 2026년 1월 첫날의 일기.

선종 직전까지 꼼꼼히 신문 스크랩을 하고, 일기를 쓰셨다.

식이 유독 강하셨습니다. 독일 유학 시절부터 선종하시기 직전까지 일기를 쓰셨고, 1973년부터는 강론 내용도 연중/사순/부활/대림/성탄 등 시기별로 그리고 가/나/다해로 구분해 깨알 같은 글씨로 다 기록해 두셨습니다. 이 엄청난 보물을 우리 수도회에 모두 넘겨주셨습니다. 독일 유학 시절 우리 수도회 지원자들을 돌보던 때의 일기를 지난 2024년 책으로 엮어드리며 책 제목을 무엇이라고 할지 신부님께 여쭙었습니다. 신부님은 주저 없이 ‘내가 사랑하는 성모 수도회’라 말씀하셨습니다. 신부님의 진심이 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수녀들의 오빠, 아버지에서 할아버지로

신부님은 평소 꼭 ‘우리 수도회’, ‘우리 수녀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현오 현오레지나 총원장 수녀가 고별사를 통해 “선배 수녀들에게는 오빠요, 저희 세대에는 아버지, 후배 세대에게는 할아버지였습니다.”라고 하신 것 또한 그저 나온 말이 아니겠지요.



1988년 입회해 지원자로 만난 신부님은 정말 자타가 공인하는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의 아버지셨습니다. 수도회에 입회한 지원자들에게 묵상 노트를 사 주시면서 매일 묵상한 내용을 적게 하였고, 부활과 성탄 카드, 그리고 편지 답신에는 항상 마지막에 ‘애비가’라고 적으셨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음악회에 수련소 식구를 다 데려가신 적도 있었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도 쉽게 접할 수 없는 것들을 딸들의 성장을 위해 기꺼이 주신 신부님의 부성애(父性愛)였습니다.

신부님과의 마지막 만남은 지난 2월 14일 저녁이었습니다. 신부님이 저와 전례 성가 담당 김충희 호세아 수녀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 말씀을 오전에 전해 듣고, 주일에 찾아뵙 예정이었지만 신부님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저녁 끝기도 후 서둘러 서울성모병원으로 갔습니다.

약 기운에 잠을 깨지 못하시는 신부님의 손을 꼭 잡으면서 “신부님 저 왔어요.” 하자, 신부님은 작은 목소리로 “구텐 탁(Guten Tag).”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독일에서 공부한 저를 만날 때마다 신부님이 건네던 인사입니다. 신부님은 양손으로 저와 호세아 수녀의 손을 꼭 잡고 한참 동안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차츰 또렷이 의식을 차리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신부님 옆을 지켜오던 글라라 자매가 신부님이 마지막 온 힘을 다해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부님은 하느님께로 갈 준비를 하는 마음이 평화롭다며 하느님 집에 가면 얼굴을 잘 알지 못하는 우리 수도회 수녀들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모두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도회가 잘 성장하고 있어 이제 안심하고 갈 수 있다고도 하셨습니다.

수도회에 남기는 유언이 된 성가 가사

호세아 수녀가 신부님께서 우리 수도회 전례 성가를 위해 많은 가사를 번역해 주신 덕분에 전례를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어 신부님께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며 제일 좋아하는 성가가 무엇인지 여쭙었습니다. 신부님께서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Christus factus est...(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순명하셨도다)”라는 성금요일 응송을 라틴어로 노래하셨습니다. 신부님은 “내가 그걸 어떻게 잊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면서 말을 맺지 못하고 우셨습니다. 짧은 시간이

었지만 처음 본 신부님의 울음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주님 사랑에 대한 감사를 알 수 있었습니다.

신부님은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어록에 호세아 수녀가 곡을 붙인 <너에게 하느님은 모든 것>은 수도회에 남기는 유언이라고 생각하며 번역했다는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한 시간 조금 넘게 뵙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기 전에 강복을 청했습니다. 신부님께 받는 이 생애 마지막 강복이었습니다. 수도회 전례 성가 담당인 호세아 수녀에게는 주님께 찬미드리는 수녀가 되도록, 수도회 기록보존실 담당인 저에게는 수도회 기록을 잘 정리하도록 해달라는 강복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김수창 야고보 신부님다운 강복 말씀이었습니다. 가장 마지막 순간, 우리 두 수녀를 보고 싶어 하신 이유 또한 분명해졌습니다. 신부님은 우리 두 수녀가 가진 달란트를 수도회를 위해 잘 쓰라는 당부를 유언으로 전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신부님의 영원한 천상 행복을 기원하고 저희를 위해 전구자 되는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께 전구를 청하며 추모의 글을 마무리합니다.

NOTE

너에게 하느님은 모든 것

-성 아우구스티누스 어록 #178

-시편 37편에 대한 강론 중에서

너에게 하느님은 모든 것!

하느님을 먹어라.

그러면 결코 배고프지 않으리라.

하느님을 마셔라.

그러면 결코 목마르지 않으리라.

하느님의 조명을 받으라.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이 없으리라.

넘어지지 않으려면

하느님께 기대어라.

한없는 전체이신 하느님은

너의 전체를 품어 주신다.

김수창 야고보 신부(1936~2026)

김수창 야고보 신부는 교구 공동체 안에서 평신도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앞장섰다. 홍제동 본당에서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 본당 장례식장을 최초로 도입해 가톨릭 상장례 토착화에 기여했으며, 잠원동 본당에서는 본당 내 의사·약사·간호사·호스피스 봉사자들로 구성된 방문간호 체계를 조직해 본당 사회복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또한 교구 사목국장 시절에는 평신도 성체분배 봉사제도를 도입, 평신도가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다.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 보도자료 중에서-

우리도, 누구나, 한번은 《곰스크로 가는 기차》

글 | 정연숙 글라라(성모자매회 회원)



프리트 오르트만 지음 | 북인더갭 펴냄

곰스크로 가야만 했던 남자

곰스크라는 미지의 도시를 꿈꾸며 평생을 살아온 한 남자가 있다. 그는 결혼식 직후 아내와 함께 곰스크로 가는 여행에 나선다. 곰스크로 가는 특급열차의 기차표는 비쌌다. 이제 막 부부가 된 이들은 거의 전 재산을 털어야만 두 사람의 기차표를 살 수 있었지만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기차표를 샀고, 기차에 올라탔다. 일생의 목표이자 운명이었고, 유일한 희망이었던, 적어도 남자에게만큼은!

그렇게 곰스크로 가는 기차와 함께 당연히 그들도 곰스크에 도착하게 될 줄 알았다. 그러나 여행 둘째 날 도착한 역에서 잠시 정차하는 동안 부부는 어이없이 기차를 놓치고 만다. 기차를 놓친 다음에야 알게 된 사실은 곰스크로 가는 기차의 운행 시간이 매우 불규칙하다는 것. 그러니까 곰스크로 가는 기차가 언제 다시 이 역에 정차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아내는 마치-그럴 리는 없다고 극구 부인하지만- 기차를 놓친 것이 잘 된 일인 양 그 마을에서의 생활을 즐긴다. 하지만 남자는 그럴 수가 없다. 하루빨리 곰스크로 가야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곰스크로 가는 기차가 정차했다. 그러나 부

부는 이번에도 그 기차를 타지 못했다. 기차표의 유효 기간이 지나버린 것이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남자도 이 마을에서 당분간 머물기로 마음먹는다. 곱스크로 가는 기차표를 사느라 전 재산을 써버린 이들이 다시 기차표를 사려면 돈을 모아야 했기 때문이다.

결국 가지 못한 미지의 그곳

한참이 지난 어느 날 또다시 곱스크로 가는 기차가 그 역에 정차했고, 마침 두 사람의 기차 샀이 그들 수중에 모여 있었다. 남편은 흥분해 지금 당장 기차표를 사서 기차에 오르자고 아내를 재촉한다. 그러나 아내는 살림살이로 장만한 안락의자를 기어코 가지고 가겠다며 고집을 피운다. 이번에도 기차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한 남자는 아내와 안락의자를 버려두고 혼자라도 기차에 오르겠노라 으름장을 놓는다. 그리고 그 순간 알게 된다. 아내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결국 남자는 아내와 안락의자와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와 함께 마을에 남는다. 그리고 그들도 그 마을 사람들이 된다.

이야기는 이렇게 맥없이 끝이 난다. 그러나 이 맥없는 끝 이후에 밀려드는 감정은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어찌면 버려두었을 해묵은 곱스크를 들추게 한다. 우리도, 누구나, 한번은, 곱스크를 꿈꾸었을 테니, 그것만이 내 유일한 목표이자 운명이라 생각했던 적이 있었을 테니 말이다.

50페이지 남짓의 짧은 단편 소설 「곱스크로 가는 기차」는 곱스크라든 미지의 도시만큼이나 미지의 작가였던 프리츠 오르트만(1925-1995)의 단편집 표제작이다. 이 단편집에는 「배는 북서쪽으로」, 「철학자와 일곱 곡의 모차르트 변주곡」, 「럼주차」 등 총 8편의 단편 소설이 실려 있다.

1990년대 대학가 해적판-실제로는 교생 실습으로 수업에 빠지는 대신 제출한 번역 과제물이었다고 한다-으로 꽤 유명했던 「곱스크로 가는 기차」는 국내에서 책으로 출판도 되기 전 이미 TV 드라마로 제작되었던 바 있다. 당시만 해도 작가와 연락이 닿지 않아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애를 먹었다고 하는데, 얼마 후 유족과 연락이 닿아 그의 단편집 《럼주차》에 함께 실어 출간했다.

기억하게 하소서! 영화 <더 파더>

글 | 이대현 요나(언론학 박사, 영화평론가)



제목 | 더 파더(The Father, 2020)

장르 및 등급 | 드라마, 12세 이상

러닝타임 | 97분

감독 | 플로리안 젤러

출연 | 앤서니 홉킨스, 올리비아 콜맨,
마크 게티스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그럼 나는 도대체 누구지?”

앤서니(앤서니 홉킨스 분)는 이렇게 말하며 흐느낀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동안 수없이 쓰고 불렀던, 팔십 평생 삶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앤서니’라는 이름조차 처음 들어본다. 치매는 이렇게 그의 현재와 과거의 시간들을 조금씩 앗아간다. 시간 위에 새겨진 기억들도 하나 둘 잃어간다. 그 느낌을 앤서니는 이렇게 말한다.

“내 앞사귀가 다 지는 것 같아.”

이제는 작은 아기 앞사귀 하나만 남아서 엄마를 찾는다.

“엄마가 보러 오면 좋을 텐데, 엄마가 보고 싶어.”

기억은 한 인간의 실존이며, 역사이다. 철학자 존 페리는 기억은 곧 영혼(불멸성)이고, ‘나’를 ‘나’이게 하는 것(동일성)이라고 했다. 치매는 그것을 허물어버린다. 정

체성을 무너뜨리고, 소중한 관계들을 지워버리고, 쌓아온 시간들을 증발시킨다. 그 무참함에 저항이라도 하듯 앤서니는 유난히 자신의 손목시계에 집착하지만, 그것으로 잃어버린 기억과 시간을 되찾을 수는 없다.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살아남는 ‘영생’이 아니라,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혼이 사라져 가는 소멸.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외롭고, 힘들고, 혼란스럽고, 슬픈지를 애잔하고, 날카롭고, 가슴 아프게 드러낸 영화 <더 파더>는 결코 별난 이야기가 아니다. 85세가 넘으면 3명 중 1명, 65세만 넘어도 10명 중 1명은 앤서니처럼 살고 있거나, 살아야 하는 고령화 사회에서 그는 나의 아버지 또는 멀지 않은 미래의 나 혹은 바로 지금의 나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텅 빈 눈, 텅 빈 기억, 그리고 텅 비어가는 자아

치매를 앓는 사람의 모습과 행동, 그리고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가족의 고통, 안타까움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한다. 정작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의 절망과 불안, 외로움과 슬픔을. 치매는 당사자도 그것들을 ‘기억’하고 이야기해 줄 수 없게 만드니 말이다.

이 영화로 2021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든셋의 나이로 사상 최고령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앤서니 홉킨스는 스스로 그 주인공(치매 환자)이 되어 그것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모든 것이 이상하고 혼란스럽다. 내 집에 낯선 남자가 주인처럼 행세한다. 딸 앤(올리비아 콜먼 분)의 행동도 의심스럽기만 하다. 앤의 여동생 루시의 그림이 벽에 걸려있었는데 없어지고, 루시를 닮은 젊은 간병인 대신 다른 여자가 나타난다. 가구가 자꾸 없어지는가 하면, 집안 모습도 바뀐다.

그도 아주 잠깐씩 기억이 돌아오지만 그것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이 늘면서 착각과 환상에 빠져들고 몇 주 전부터 자신이 요양원에 와있다는 것도 모른 채, 딸을 찾는다. 어쩌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싫고 무서워 스스로 기억을 버렸는지도 모른다.

병원 복도 의자에 혼자 앉아 있는 앤서니의 막막한 표정,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의 텅 빈 눈, 아버지를 요양원에 맡기고 나오는 앤의 젖은 눈빛이 좀처럼 잊히지 않는다.

주님, 우리 모두 살아있는 동안 스스로를 기억하게 하소서!



모든 이에게 모든 것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은,
폭력적인 이들의 손에 의해 질식될 위기에 처한
희망에 새로운 목소리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복음이 세상에 선포될 때,
그 기쁜 소식은 언제나 모든 어둠을 밝혀 줍니다.

2026년 부활대축일 삼종기도 중에, 레오 14세 교황



외출을 마치고 알마티로 돌아오던 한성숙 살레시아 수녀가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동을 만나 인사하며 초콜릿을 건네주었다.

희망으로 삶의 자리를 지키는 모든 이에게 주님의 평화를!



1



2

① 평화의 순례 딸띠꼬르간 성당에 순례 온 코냐예프 성당 교우들 2026. 3. 14. ② 그림자극 'Transitus' 딸띠꼬르간 성당 지하 강당에서 프란치스코회의 수도복을 입고 그림자극을 한 청년들 2026. 3. 14.





③ 부활달걀 준비 마리아의 집에서 부활달걀을 준비하는 청년들 2026. 4. 4. ④ 사제 서품식 사제 서품식이 열린 삼위일체 주교좌 성당에서 알마티교구 첫 사제 막심과 함께 2026. 4. 11.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요한 17,11

글 | 한성숙 살레시아 수녀



아밀리나 자매와 함께
영어 공부를 하는 필자

봄의 시작과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명절, 나우르즈

이곳 카자흐스탄에서는 봄이 시작되는 3월과 계절의 여왕인 5월 두 번의 큰 명절을 지냅니다.

3월 21일경 춘분을 기점으로 시작되는 나우르즈(Nauryz)는 봄의 시작과 새로운 삶의 출발을 알리는 새봄맞이 축제로, 우리나라의 설 명절과 비슷한 의미를 지니는 이른바 민족의 명절입니다. 혹독한 겨울이 끝나고 자연과 사람이 함께 새로워지는 시기라는 의미를 두기에 나우르즈는 서로 화해하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날 사람들은 집 안팎을 깨끗이 청소하고, 새 옷을 입습니다. 또 이웃과 친척을 방문하여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우리나라 설 명절과 풍습마저도 매우 비슷합니다.

축제 기간에는 몇 가지 전통 음식을 먹는데, 첫 번째 음식은 나우르즈 코제입니다. 고기, 물, 소금, 곡물, 우유 등 7가지 재료로 만든 일종의 수프로 풍요와 건강, 행운, 생명을 상징합니다. 이 나우르즈 코제를 사람들과 나누어 먹음으로써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임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음식은 베쉬바르막으로 삶은 고기와 넓은 면을 함께 먹는 요리입니다. ‘다섯 손가락’이라는 뜻을 지닌 베쉬바르막은 손으로 먹는 전통에서 비롯된 이름이라고 합니다. 환대와 기쁨의 식탁이라는 의미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름에 튀긴 작은 빵, 바우르샤를 먹는데 여

기에도 행복과 풍요, 따뜻한 나눔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말 젖을 발효한 음료 쿠미스와 낙타 젖을 발효한 음료 슈바트를 곁들이게 되는데, 이는 건강과 생명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나우르즈 축제 기간에는 중앙광장에 유르타(카자흐스탄 전통 가옥인 천막)를 설치하고, 이 음식들을 차려 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해 음식을 대접합니다. 광장 곳곳에서는 축제 분위기를 더하는 전통 음악과 춤, 민속놀이가 펼쳐집니다. 말타기, 연날리기, 그네뛰기와 같은 이들의 명절놀이가 우리나라의 그것과 매우 닮았습니다. 도시와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로 넘쳐납니다.



▶ 2025년 나우르즈 축제에 함께한 필자
▶ 딸띠꼬르간 중앙광장에 설치한 유르타 내부에 차려진 나우르즈 전통 음식



다름 안에서 하나 됨을 기뻐하는 민족 일치의 날

5월 1일은 민족 일치의 날로 나우르즈 못지않게 중요한 명절입니다. 130여 민족이 넘는 다양한 민족과 그들의 문화가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는 카자흐스탄에서 화합과 공존, 평화를 기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단일민족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기 힘든 매우 독특한 명절입니다.

이날 중앙광장에는 카자흐인과 러시아인(카자흐스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민족)을 비롯해 우즈베크인, 고려인, 독일인, 폴란드인, 타타르인, 체첸인, 중국인 등 다양한 민족들이 각각의 고유한 전통 의상을 입고 모입니다. 전통문화 공연도 하고, 민족별로 부스를 차려놓고 전통문화를 엿볼 수 있는 여러 물품이나 전통 악기, 놀이 기구 등을 전시합니다. 전통 음식도 차려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대접합니다. 매우 소수이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고려인들도 예쁜 한복을 입고 부스에 나와 전통 음식을 차려놓고 전통 춤까지 선보입니다. 딸띠꼬르간 성당 교우들의 주류인 폴란드인들도 부스를 만들고 전통의상을 입고 나옵니다. 우리 수녀들도 이들과 함께하며 고려인 부스로 같이 이동해 담소하며 교류를 합니다.



2025년 민족 일치의 날에 고려인들과 함께

다름 안에서 하나 됨을 기뻐하는 민족 일치의 날은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나누는 공동체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우르즈와 민족 일치의 날은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나누는 축제입니다. 이 축제를 통해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 주신 것처럼 신앙 안에서 다름을 넘어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삶에 대해 조용히 묵상하게 됩니다.

이곳에 살면서 다름을 배척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이들의 정신이 일상의 삶 안에 이미 깊숙하게 스며들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사순 시기를 보내며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함께 참여하고 마침내 부활을 맞이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새 생명과 새 빛을 받아 새롭게 기쁜 부활의 삶을 사는 것과 이들의 풍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우리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민족일치의 날 딸띠꼬르간 중앙광장
독일 부스에서 독일 전통 의상을 입은 아이들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글 | 오은영 은영데레사 수녀



알마티교구 청년 피정 중
코나예프 호수를 산책하던
콘솔라따수도회 헬렌 수녀와 필자

딸띠꼬르간 성당을 찾은 평화의 순례자들

레오 14세 교황은 아시시의 성인 프란치스코 선종 800주년을 기념해 올해 1월 10일부터 2027년 1월 10일까지 성 프란치스코 특별 희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경계를 세울 때 다리를 놓을 용기를 주시도록” 성인의 전구를 청하며 이번 교령은 “이전의 모든 기념행사의 절정이자 완성의 해가 될 것”이라고 명시하고, “갈등과 분열로 고통받는 이 시대에, 저희가 평화의 조성자가 되도록, 무장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들을 무장 해제시키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화의 증인이 되도록 저희를 위해 중재해 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카자흐스탄 딸띠꼬르간 성당에는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의 수사 신부들이 계십니다. 성당 안 제대 밑에는 성 프란치스코,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성녀 글라라의 유해가 모셔져 있습니다. 은혜로운 특별 희년을 맞아 이곳에서 매일 미사를 할 수 있다는 것에 깊이 감사드리게 됩니다.

지난 3월 14일에는 딸띠꼬르간에서 200km 떨어진 카자흐스탄 알마티교구 코나예프 성당에서 교우 25명이 전대사를 받기 위해 순례를 왔습니다. 유모차에 태운 아기까지 아들딸 5명이 함께하는 젊은 부부의 모습이 특히 아름다웠습니다. 프란치



청년들이 준비한 그림자극
'Transitus'

스코 성인의 생애와 영성에 대한 강의로 일정은 시작되었고, 성체 현시와 고해성사 후 미사가 이어졌습니다. 성당을 뛰어다니는 아이들과 자매들의 품에 안긴 어린 아기도 몇 명이 있었기에 소란스러운 법도 한테 어느 때보다 고요하고 차분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미사 후 우리 본당 교우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플러프(잔치나 행사 때 먹는 음식), 직접 구운 파이와 후식으로 점심 식사를 하며 잔치의 분위기를 이어 갔습니다. 식사 후에는 본당 청년들이 준비한 그림자극 'Transitus'를 감상했습니다. 라틴어로 '건너감', '통과'라는 뜻을 지닌 'Transitus'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죽음을 기념하여 10월 3일에 거행하는 프란치스코 전통의 전례와 기도 예식으로, 이 세상에서 하느님께로 건너감을 의미합니다. 프란치스코회 수도복을 입은 청년들은 평소 잠시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던 전형적인 MZ 세대의 모습과 달리 프란치스코 성인이 죽음을 맞이하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 진지하게 기도하고 노래하며 한마음으로 움직였습니다. 깊은 여운을 남겨준 그림자극 'Transitus'가 끝나고 신부님의 강복으로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함께한 모든 이에게 부어진 성령의 은총을 받아안고 충만한 마음으로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달띠꼬르간 성당에 순례 온 코나예프 성당 교우들과 함께
2026. 3. 14.

삶의 자리를 성실히 일구며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평화를
평화의 순례를 온 교우들을 맞으며 준비하고 함께한 시간은 우리 본당 교우들에게 더욱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대다수가 무슬림인 이슬람 국가에서 극소수에 불과한 가톨릭 청년 신자들이 하나 되어 함께한다는 것에서 희망을 느끼고 볼 수 있었습니다.

1년간 성당 주변을 맴돌다 개종한 대학생, 수도원 보수 공사 일을 하다 가톨릭에 매료되어 개종한 청년, 세례는 받지 않았지만 주일미사에서 성가를 함께 부르는



코나예프 성당에서 열린 알마티교구 청년 피정 2026. 3. 23~25.

것이 좋아 오가는 청년들.... 구소련 시대에 이곳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 되어온 폴란드계, 독일계 후손들이 오랜 세월 가톨릭의 명맥을 이어왔지만 그 후손들이 점점 줄어 가는 이때에 성당에 청년들이 모여드니 모처럼 생기가 돕니다.

일자리가 많지 않고 월급이 적어 외지로, 외국으로 떠나는 이들이 많지만 기록하지 않은 일상에서 삶의 자리를 성실히 일구며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의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흘러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리하여 지금 이곳에, 그리고 온 세상으로 퍼지길 프란치스코 성인에게 전구를 청하며 오늘도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알마티교구 청년 피정에
함께한 청년들과 필자

버티는 삶, 살아내는 삶



글 | 윤진욱 이사야(서울대교구 길동성당 신학생)

작아서 더 소중하고 귀한 것

카자흐스탄 팔미코르간에서 약 3주간 선교 체험을 하며, 선교의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선교, 특히 해외 선교라 하면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주도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카자흐스탄에서 마주한 교회와 선교의 모습은 제 상상과 많이 달랐습니다.

이곳은 무슬림 국가이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오직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선교와 복음 선포가 가능했습니다. 예상과는 다른 상황과 모습에 조금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살아가며 선교하는 분들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가을에 팔미코르간에 도착했습니다. 군필 신학생들의 주특기인 낙엽 쓸기, 텃밭 일구기 등의 능력을 발휘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시기였습니다. 바람이 불어 낙엽이 떨어지면 금세 원상태로 돌아가 무의미한 일일 수도 있었지만, 군필 신학생들은 성당을 찾는 교우들의 발걸음이 조금은 깨끗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낙엽을 쓸었습니다. 우리 마음을 알아주시는 교우들의 사랑 가득한 칭찬으로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생겼습니다. 매일미사에 오는 교우들과 함께 미사를 드리며 그들의 따뜻함을 더 깊이, 더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수이기에 더욱 소중히 여기며, 가족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묵묵히 사목하고 봉사하는 신부님과 수녀님의 모습을 보며 카자흐스탄에서의 선교는 눈에 띄는

것이 아님에도 오히려 그 무엇보다 더 강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마태 18,20)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작지만 그렇기에 더욱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이곳에서 체험했습니다.

복음화의 희망으로 살아내고 버티는 선교사의 삶

한 살레시아 수녀님은 이곳에서 13년이나 생활하셨다고 합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이곳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며 버티는 삶이고, 그렇게 버티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께서 알려주시는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버티는 삶’이라는 말이 저에게 특별하게 와닿았습니다. 결과를 당장 확인하고 볼 수 있는 곳이 아니기에 복음화의 희망을 간직한 채로 살아가고, 살아내면서 버티는 삶이 더욱 아름답고 고귀하게 느껴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 나라-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언젠가는 더 많은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수녀님과 신부님들! 겨울을 이겨낸 씨앗이 봄에 싹을 틔우는 것처럼 이곳 카자흐스탄에 심어 놓은 복음의 씨앗 하나하나가 언젠가는 싹을 틔우고 더 큰 열매로 맺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 딸띠꼬르간 성당 미사 중에 복사를 하는 필자 2025. 10.

▶ 성당 마당의 낙엽을 쓰는 신학생들 2025. 11.

▶ 성당 대청소를 하는 신학생들 2025. 10. 24.



희 망



오 은영데레사 수녀와
한국어 공부 중인 필자

안녕하세요?

카자흐스탄 딸띠꼬르간에서 살고 있는 저는 지아나 미가체바(17세)입니다.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새로운 지식을 얻는데 관심이 많은 저는 오 은영데레사 수녀님과 함께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는 소리가 독특하면서도 아름다워서 무척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새로운 단어를 외우는 것이 간혹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래서 더 흥미롭기도 합니다. 문자의 의미를 이해하거나 스스로 말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기쁨과 자신감을 느낍니다.

한국어를 배움으로써 저는 인내심과



글 | 지아나 미가체바

세심함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일이 곧바로 잘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며, 작은 성취에도 기뻐할 줄 압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가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그로 인해 계속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저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에 참석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세계청년대회는 세계 여러 나라 젊은이들이 모여 서로 소통하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서로 친구가 되어 더 큰 세상의 일부가 되는 것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평화와 선,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상호 이해를 위해 함께 기도함으로써 더욱 의미 있는 영적 만남의 자리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Надежда

Здравствуйте! Меня зовут Диана, мне 17 лет, я из Казахстана, город Талдыкорган. Я изучаю корейский язык с сестрой Терезой, потому что мне интересно узнавать новую культуру и получать новые знания. Мне нравится, как звучит корейская речь, она кажется мне необычной и красивой. На занятиях иногда бывает трудно запоминать новые слова, но это делает процесс обучения более интересным. Когда у меня получается понять смысл фразы или сказать что-то самой, я чувствую радость и уверенность в себе.

Изуч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учит меня терпению и внимательности. Я стараюсь не сдаваться, даже если что-то не получается сразу, и радуюсь своим маленьким успехам. Со временем я замечаю, что начинаю понимать больше, и это меня вдохновляет продолжать.

Я также думаю о 2027 Всемирном дне молодежи. Мне кажется, это очень важное и интересное событие, где собираются молодые люди из раз-

ных стран. Там можно познакомиться, пообщаться и узнать много нового друг о друге. Я бы очень хотела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потому что это возможность получить новые впечатления, найти друзей и почувствовать себя частью большого мира. Во время этого события также можно объединиться в общей молитве, попросить о мире, добре и взаимопонимании между людьми, что делает его ещё более значимым и душевным.

Диана Мигачева



성가대 활동에도 열심히 필자





프로퍼 급식소 앞 골목에서 정 유닛 수녀를 만난 아이들이 달려와 품에 안긴다. 2026. 3. 18.



① 그린존 어린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나눠 주는 김 가브리엘라 수녀 2026. 1. 15. ② 마켓3 정 유딿 수녀를 반기는 어린이들 2026. 3. 16. ③ 린창고 급식소 식사 전후 책을 읽고 있는 어린이들 2026. 3. 27.



4



5



6

④⑤ 제2회 따하난 니 마리아 유치원 졸업식 졸업생들에게 인사하는 최 요세핀 수녀, 선서하고 있는 졸업생 대표 2026. 3. 24. ⑥ 나보
따스 거리 성금요일 십자가의 길을 동행하는 수녀들 2026. 4. 3.



① 부활달걀 준비 2명의 성소자와 함께 2026. 4. 4. ② 전쟁을 피해온 외국 어린이들 유치원에 온 우크라이나, 러시아 어린이들과 함께 2026. 4. 8.

| 호치민 | 김미라 마리앤 수녀, 김재숙 시릴로 수녀

| 다낭 | 김희자 마리뤼다 수녀, 백미현 글라라 수녀



③ 설 인사 홀 베드로 본당 신부의 동나이 본가에 방문해 설 인사를 나누는 교우들과 수녀들 2026. 2. 7. ⑤ 땀겨우 길 고아원 방문 세벳돈을 받고 감사 인사하는 고아원 어린이들 2026. 2. 12. ⑥ 화빈대 한국어 수업 한국어 대화 실습을 하는 학생들 2026. 3. 9.



① 브라데라스 공소 어린이 첫영성체 (뒤쪽 왼쪽부터)교리교사 닐스, 송 리사 수녀, 옹 무뇨즈 프랑코 신부, 이 글라리사 수녀 2026. 1. 4. ② 축복받은 성경 읽기 두루히오 모체 본당 성인 32명에게 강의하는 박 임마누엘 수녀 2026. 1. 4. ③ 여름 방학 교실 칸또의 구 수녀원에서 열린 여름방학교실에 참가한 가난한 지역 어린이들과 신 스페란자 수녀 2026. 2. 3~27.

| 비야 엘 살바도르 | 이순옥 글라리아 수녀, 송선영 리사 수녀
 | 깐가리 공소 | 김향련 마리후꼬 수녀, 곽호임 마리오셉 수녀
 | 리마 선교센터 | 신영애 스페란자 수녀, 박정호 임마누엘 수녀



④ 성지주일 미사 전 행렬 비야 엘 살바도르 구세주 그리스도 본당 교우들과 곽 마리오셉 수녀 2026. 3. 29. ⑤⑥ 성지주일 재현 완파에 있는 메르세데스 초등학교의 유치부 어린이들과 김 마리후꼬 수녀 2026. 3. 29.

요셉의원 / 사회사목 사도직

가장 작은 이들 곁에서, 영원한 도움이 되다

탐방·정리 | 성모자매회

서울역 인근 수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길목 한편,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찾아오는 이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찾아 나서는 병원도 있다. 몸의 질병뿐 아니라 무너진 삶까지 끌어안으며 다시 일어설 힘을 보태는 곳, 요셉의원이다.



◀ 서울역 인근으로 이전한 요셉의원 건물

▲ 안 로벨도 수녀(왼쪽)와 이 마리바울라 수녀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와의 인연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환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며, 그들의 자활을 위하여 최선의 도움을 준다.’는 이념 아래 故 선우경식(요셉) 초대 원장이 1987년 신림동에 설립한 무료 자선병원 요셉의원. 이후 영등포역 부근 쪽방촌으로 이전했다가 이 지역이 재개발되면서, 2025년 서울역 인근에 새롭게 자리를 잡았다.

요셉의원과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의 인연은 초창기 신림동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우리 수도회 김인자 스페스 수녀가 보라매병원 간호사로 소임했는데, 주말마다 요셉의원을 찾아 봉사를 했다. 이 만남은 요셉의원의 정신과 우리 수도회의 사명이 맞닿아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어졌다.

이후 염경자 보나벤투라 수녀가 요셉의원의 임상사목교육(이하 CPE) 슈퍼바이저로 참여하면서 직원 교육과 영적

돌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수도회와 요셉의원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리고 2008년 4월, 선우경식 원장 선종 이후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된다. 이문주 프란치스코 신부가 2대 원장으로 부임하면서 우리 수도회가 원목 사도직을 맡게 된 것이다.

사명과 정체성— 일상 안에서의 지속적인 동행

요셉의원은 몸이 아파도 병원을 찾지 못하고, 병이 나아도 다시 돌아갈 삶의 자리가 없는 사람들의 삶을 조용히 붙들어 준다. 그들에게 요셉의원은 단순한 병원이 아니라 ‘다시 인간으로 존중받는 자리’이다. 현재 안분이 로벨도 수녀와 이희숙 마리바울라 수녀가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

안 로벨도 수녀가 요셉의원에 부임한 것은 2024년 2월. 요셉의원은 소임지기 이전에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다.



쪽방촌을 방문하기 전 기도하는 안 로벨도 수녀와 봉사자들



봉사자와 함께 쪽방촌을 방문한 안 로벨도 수녀



쪽방촌 이웃들과 나눔 부활달걀 앞에서 행복한 봉사자들과 두 수녀들

20년 전, 부산 영도 산동네에서의 사도 직은 안 로벨도 수녀에게 잊히지 않는 기억이었고, 행복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또 하나의 기도가 되었다.

“저에게 힘이 있을 때,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세요.”

기도에 대한 응답은 영등포, 그리고 서울역 인근 가장 낮은 자리로 이어졌다.

요셉의원에 처음 온 날 안 로벨도 수녀의 머리에 떠오른 문장은 ‘아, 여기가 바로 ‘야전병원’이구나!’ 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수도자들에게 끊임없이 요청했던 바로 그 자리가 여기라는 생각이 든 것이다.

지난 2월 요셉의원에 온 이 마리바울라 수녀의 시작은 조금 달랐다. 병원 원목 사목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자리를 옮겨왔다. 병원도 아니고 사무실도 아닌 것 같은 이곳이 처음에는 낯설고 버거웠다. 무엇보다 큰 충격은 ‘사람’이었다. 처음엔 줄지어 서 있는 사람들, 노숙인들 사이를 지나가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그러나 ‘그동안 내가 얼마나 보호받으며 살아왔던가’를 인식하기까지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이곳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보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를 먼저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이 커졌다.

요셉의원에서 우리 수도회 수녀들의 역할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환자를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연결하고, 다시 찾아가는 일의 반복에서 사도직의 정체성이 드러난다. 이는 특별한 활동이라기보다 일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동행이며, 그 자체가 사명이다.

의료적 치료와 함께 다시 살아갈 힘을 준다

‘이웃사랑센터’를 맡아 방문 진료와 연계 활동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안 로벨도 수녀. 쪽방촌을 방문해 환자를 찾아내고, 치료로 연결하며, 이후의 삶을 이어가도록 하는 과정을 함께한다. 환자가 발견되면 간호사가 채혈을 하고, 병원으로 연결되며, 치료가 이어진다. 이후에는 CPE 봉사자들이 찾아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이 과정을 통해 의료적 접근을 넘어, 병원을 찾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노숙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이들이라면 이러한 도움이 필수적이다. 또한 치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방문을 통해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추가적으로 이어간다.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아픈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곳의 사도직은 ‘의료’이면서 동시에 ‘동행’이고 ‘회복의 여정’이다.

이 마리바울라 수녀는 ‘영성센터’를 담당하고 있다. 병원 사목 경험을 바탕으로 음악치료, 영화 포럼, 성경 공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장 적절한 영적 돌봄의 방향성을 만들어 간다. 참여 인원은 많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이들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정서적 안정과 관계 형성이 이루어진다. 특히 음악치료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이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표현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도 있다. 이러한 활동은 의료적 치료와는 다른 방식으로 회복을 지원한다.

두 수녀는 서로 다른 영역을 맡고 있지만, 결국 한 가지 목적 안에서 만난다. 의료적 치료와 더불어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대상이 아닌 존재와 함께하는 여정

안 로벨도 수녀의 기억 속에 지울 수 없는 사건이 있다. 한 형제에게 다시 찾아오겠노라고 약속했지만, 사정이 생겨서 가지 못했다. 그 형제는 하루 종일 기다렸고, 깊은 상처를 받았다.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이 마리바울라 수녀



음악치료 프로그램에서 즐거워하는 참가자들

“그때 알았어요. 가난한 이들에게 약속은 생명과도 같다는 것을!”

그 이후 안 로벨도 수녀의 사도직에는 하나의 원칙이 생겼다. 작은 약속도 반드시 지킨다! 그것은 단순한 신뢰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마리바울라 수녀는 음악치료 프로그램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기억에 남는다. 7명 남짓한 참여자 중에는 쪽방 주민도, 노숙 경험이 있는 이도 있다. 이 마리바울라 수녀는 그들을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그분들이 여기 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일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삶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그 자리를 지킨다. 한 남성은 자신의 상황을 숨긴 채 조용히 참여하지만, 매번 컵을 정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또 어떤 이는 삶의 기억을 노래

로 풀어낸다.

“그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보여요.”

그 자리에서 그들은 평가받지 않고, 비교되지 않는다. 그저 존재로 머문다. 이곳은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그대로 머물 수 있는 자리다.

보이게 혹은 보이지 않게 함께하는 이들

요셉의원은 수많은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운영된다. 약 130명에 이르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이 각자의 일정에 맞추어 진료와 지원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이들도 있고, 개인 시간을 활용하여 간헐적으로 봉사하는 이들도 있다. 후원자들의 꾸준한 도움 역시 중요한 기반이다.

요셉의원은 지역사회 내 다른 기관들과도 연계되어 있다. 여성 노숙인을 위

한 쉼터, 급식소, 사회복지 기관 등과 협력해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연결하고 있다. 환자의 상황에 따라 의료 지원뿐 아니라 주거, 생활, 심리적 지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이러한 네트워크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병원을 직접 찾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는 정보 제공과 안내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이름 없이, 대가도 바라지 않는 많은 이들의 손길과 발걸음이 이 병원을 지탱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故 선우경식 원장의 정신이 살아 숨 쉬고 있다.

우리는 누구의 곁에 서 있는가?

요셉의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단순한 의료 봉사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환자 한 명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그 사람이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수녀들의 역할도 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동행하는 데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눈에 보이는 치료가 아닌 내면의 회복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 역시 이 사도직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사도직은 특별한 방식이 아니라, 일상적인 만남과 반복되는 방문, 그

리고 작은 실천을 통해 이어진다.

안 로벨도 수녀는 “힘든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라는 바람을 말한다. 결국 요셉의원의 사도직은 가난한 이들을 ‘대상’이 아니라 ‘이웃’으로 바라보는 데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요셉의원은 특별한 장소가 아니다. 단지 그동안 우리가 애써 외면해 온 현실의 한가운데일 것이다. 누군가는 병원을 몰라서 오지 못하고, 누군가는 용기가 없어 그 문을 열지 못한다. 그럴 때 따뜻한 한마디, 한 번의 관심이 그의 삶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 수녀는 오늘도 같은 길을 걷는다. 누군가의 문을 두드리며,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기도하며 그 길 위에 이미 하느님께서 먼저 와 계셨다는 것을 깨닫는다.

요셉의원은 크지 않다. 넉넉하지도 않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매일 기적이 일어난다. 그 중심에는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사도직이 자리하고 있다. 그 역할은 눈에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현장을 이어가는 중요한 축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이 사도직이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한다.



한마음 한뜻

은유한 사랑이란,
이웃을 바라보기 위해 눈을 들고,
그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의 집인 지구가 내는
침묵의 부르짖음까지도 귀담아듣는 것입니다.
강인함과 용기를 지닌 '은유한 사랑'이라는
그 길을 여러분도 걸어가십시오.

프란치스코 교황 자서전
《희망》중에서 발췌



수도회 소식

충주성심
농아재활원
개원 55주년
2026. 3. 21.



▲ 사회사목국장 조중희 신부 주례로 감사미사를 봉헌하고, 오영희 마리아가리따스 수녀와 재활원 직원들이 수화 공연을 했다.

발 씻김
예식
2026. 4. 2.



▲ 주님 만찬 성목요일 발 씻김 예식 중에 수녀들의 발을 씻어 주는 총원장 수녀와 부총원장 수녀



WYD
상징물 순례
2026. 4. 18.

▲ 순례 중인 WYD(World Youth Day, 세계청년대회) 상징물인 십자가와 성모 성화를 수지성모의집 성당에 모시고 기도하는 수녀들



봄 생명평화순례
2026. 4. 21~23.

▲ 한국 천주교 여자 수도회 장상 연합회 JPIC(Justice Peace Integrity of Creation)분과에서 마련한 2026년 봄 생명평화순례에 참여해 2박 3일간의 여정을 함께했다.



▲ 순례 첫날 경북 영주시 순흥 제비마을에 도착한 허수진 수진루시아 수녀, 한세열 요한프란치스카 수녀 (왼쪽부터)



평화나무농장
방문
2026. 5. 11.

▲ 한국 천주교 여자 수도회 장상 연합회 JPIC분과에서 마련한 수도자전환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녀들이 경기 포천 평화나무농장을 견학했다. 평화나무농장은 생명역동농업으로 땅을 살리며 농사 달력에 따라 농사를 짓는다.

어버이날 행사
2026. 5. 8.



▲ 어버이날을 맞아 수지성모의집 노년기 소임 수녀들을 본원으로 초대해 교회와 수도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선배 수녀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성모자매회 소식

김수창 야고보
신부 선종

2026. 2. 25~27.



▲ 성모자매회 설립의 기틀을 마련하고 성장을 이끌어 주신 김수창 야고보 신부의 장례미사와 삼우미사를 함께하며,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여정을 기도로 동행했다.



임원 워크숍

2026. 2. 20.



▲ 정릉성모교육원에서 22대 임원들이 재속회로서의 정체성과 방향 재정립을 위한 워크숍을 시작하며, 부총원장 배준희 준회안나 수녀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

월봉헌일
2026. 3. 9.



▲ 2026년 월봉헌일 강도의 큰 주제인 ‘교회의 가르침’과 관련하여 3월에는 박정우 후고 신부(서울대교구 도림동성당)의 ‘사회교리의 네 가지 핵심 원리’에 대한 강도가 진행되었다.

▲ 오후에는 지역별·단체별로 통합소식지에 소개된 책 《시편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로의 생각과 체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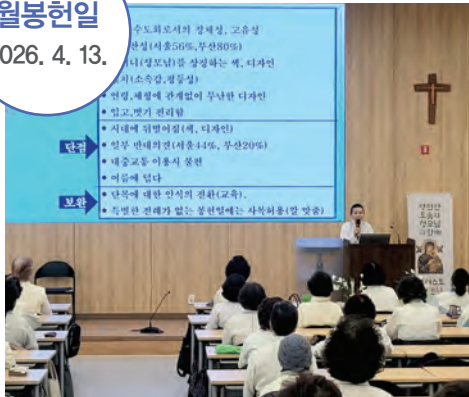
필리핀
나보따스 방문
2026. 3. 15~18.



▲ 엄정미 보나 자매 외 편집위원 2명과 김미선 미션젬마 담당수녀가 통합소식지 칼럼 ‘사도직 이야기’ 취재를 위해 필리핀 나보따스를 방문했다.

월봉헌일

2026. 4. 13.



▲ 지난 1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TF 중간보고에서 단복 개선안에 대해서는 김춘희 비올리나 자매가, 협력회원 도입안에 대해서는 홍미영 안나 자매가 각각 발표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월봉헌일

2026. 5. 11.



▲ 성모 성월인 5월 월봉헌일에 문연희 연희세레나 수녀의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이콘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강의 후에는 본원 성당으로 미사를 봉헌하러 가는 길에 자매회원들과 담당수녀들이 영원한 도움의 성모상 앞에서 다함께 사진 촬영을 했다.

월봉헌일

2026. 2. 23.



◀ 월봉헌일 시작 기도 후, 김희산 아녜스 자매와 송경복 카타리나 자매의 선·후창으로 성무일도를 바쳤다.

▶ 준회원식을 한 박점숙 소화데레사 자매를 축하하며 지난 2월 새로 부임한 서효경 마리스텔라 담당수녀가 함께 사진을 찍었다.

월봉헌일
및 준회원식

2026. 3. 23.

| 깐가리 |

▶ 소임 후 첫 월봉헌일 모임을 한 김향련 마리후고 담당 수녀와 자매회원들이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며 요셉동 앞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월봉헌일

2026. 3. 5.



월봉헌일

2026. 2. 5.



◀ 요셉동 경당에서 미사 후, 미사를 집전한 호르헤 신부와 자매회원들

| 비야 엘 살바도르 |

월봉헌일
2026. 3. 11.

- ▶ 비야 엘 살바도르에서의 소임을 마치고 깐가리로 이동하는 이옥순 글라리아 수녀에게 자매회원들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함께 사진을 찍었다.



- ▶ 새로 부임한 곽호임 마리오셉 담당수녀가 자매회원들과 인사한 후 함께 매일미사 권두언을 읽고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 깐또 그란데 |

월봉헌일
2026. 3. 22.



- ▲ 자매회원들이 떼제 기도를 통해 침묵과 묵상 안에서 주님과의 일치를 이루며 평화를 청하는 기도를 바쳤다.

| 시애틀 |

월봉헌일

2026. 2. 15.



월봉헌일

2026. 3. 15.



▲ 월봉헌 미사 중 거행된 준회원식을 통해 이시향 그레고리아 자매 외 3명의 자매가 준회원이 되었다.

◀ 3월에 축일을 맞은 자매회원들을 축하하고 선물을 증정했다.

| 남가주 |

월봉헌일

2026. 3. 29.



▲ 미주지부 남가주의 첫 준회원식이 월봉헌 미사 중 거행되었다. 이날 준회원식을 통해 이현미 데레사 자매 외 5명의 자매들이 준회원이 되었다.

말씀, 침묵, 기도, 찬미와 영혼의 쉼

글 | 이수현 나탈리아(캐나다 토론토 St. Mary Immaculate 성당)

내겐 더욱 특별한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는 저에게 아주 특별한 수도회입니다. 1990년 제 언니(이수진 수진엠마 수녀)가 입회하던 날부터 지금까지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와 수녀님들을 위해 매일 기도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언니 수녀님이 본원의 수도원체험 프로그램과 성모자매회를 담당하게 되었으니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언니 수녀님에게 기도로 힘을 보태는 영적 동반자라고 생각해왔기에 그날부터 매달 첫 토요일의 수도원체험 참가자들과 둘째 월요일 월봉헌을 하는 성모자매회 회원들 그리고 수녀님, 봉사자들을 생각하며 기도로 함께 했습니다.

2005년부터 캐나다 토론토에서 이민 생활을 해온 저는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자 작년 가을 한국에 잠시 방문해 처음으로 수도원체험 피정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2월에는 혼자서, 그리고 3월에는 주님의 사랑과 평화의 감동을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랑하는 친구 두 명과 함께했습니다. 얼마나 고대했던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온갖 걱정과 두려움을 제 작은 등에 한껏 지고 무거운 마음으로 본원으로 가는 언덕을 올라 고요한 수도원 마당에 도착해 매일의 기도 안에서 불렀던 이름,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을 마주하는 순간, 주님께서 이미 준비해 두셨던 은총을 저에게 쏟아부으시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요한 2,5).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3,34).

두 차례의 수도원체험에서 제가 뽑은 이 말씀을 지금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가 선택했다기보다는 예수님과 성모님이 저에게 꼭 해 주고 싶으셨던 말씀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나의 주님!

캐나다 이민 생활을 시작하면서 생각하기도 못했던 거친 광야에서 모진 폭풍우와 무서운 불길을 만났고, 그럴 때마다 저는 걱정과 불안을 끌어안고 짊어지고 때론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일어나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 암 수술까지 받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안에서 저와 제 가족 곁에서 영혼까지 보듬어 주고 계신 주님을 느꼈습니다. 영육의 어려움으로 지쳐갈 때,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평화와 희망의 선물을 제게 주셨습니다. 말씀이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수녀님들께서 이끌어 주신 소침묵과 찬미의 시간, 낮기도, 성체 앞에서의 기도 시간은 설레었고, 편안하고 든든했으며, 그 무엇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영혼의 쉼’이 필요했던 이들에게 아낌없이 수도원을 개방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초대하는 수도원체험에 함께해 주시는 수녀님들, 봉사자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록하지 않은 삶의 광야에서 저를 만나주신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본원 성당에서 낮기도를 하고 있는 필자



수도원체험 피정을 함께한 친구들과 필자
(왼쪽에서 세 번째가 필자)



수도원 체험은 매월 첫 토요일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에서 주최하는 하루 일정의 피정 프로그램입니다. 일상을 떠나 수도자들의 기도와 침묵을 경험하고, 말씀과 찬미와 미사를 통해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깊이 만나면서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며 행복을 맛보는 시간을 드립니다.





후원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후원해 주신 분들

강경숙	권홍수	김숙연	김종률	류원백	박혜경	신성옥	우정숙	이경희	이순영	이지선
강대환	김경순	김순례	김종석	문금주	박혜신	신숙	원미자	이관우	이순임	이지영
강미진	김경신	김순희	김종옥	문복자	배명희	신신애	원정원	이그림	이순희	이지희
강민경	김금련	김승현	김종철	문정순	배수경	신정택	유미하	이금순	이승분	이진태
강선이	김기문	김시연	김지후	문태성	배순원	신필	유설애	이덕아	이신자	이창현
강설순	김기복	김영경	김진원	문혜숙	배은희	심명옥	유성분	이매동	이연심	이춘화
강영옥	김길여	김영숙	김진한	민병희	배차남	심은현	유재숙	이명희	이영미	이태원
강훈승	김남수	김영옥	김춘자	민영석	백인자	심재경	유정선	이문희	이영빈	이택중
견복순	김남필	김영자	김춘희	민옥기	백주희	심지은	유정현	이미경	이영숙	이혁연
고경옥	김도연	김영주	김태은	박기분	변상원	안대인	유지영	이미나	이영원	이현숙
고경희	김동순	김옥순	김태호	박기자	변정희	안선영	유진희	이미령	이영일	이현준
고순례	김말순	김옥자	김현경	박대성	서명동	안재희	유찬영	이미선	이영자	이현희
고예리	김명희	김용각	김현동	박미숙	서복순	안정은	유태안	이미애	이영주	이혜경
고은실	김미경	김용규	김현미	박선규	서애선	안주현	유현종	이미자	이영환	이혜주
고현순	김미원	김용진	김현숙	박선영	서연희	양경철	유희영	이미정	이용순	이희병
공석초	김미자	김유경	김현아	박소영	서주혜	양성후	유희정	이미화	이우창	이희순
곽숙자	김미현	김유정	김현주	박수진	선군자	양영은	윤경임	이민정	이윤희	이희열
곽신영	김미희	김윤순	김형권	박순이	성낙훈	양정희	윤공순	이민희	이은경	이희정
곽옥자	김범수	김윤자	김혜숙	박애순	성하림	양현숙	윤규섭	이상분	이은아	임명숙
곽정희	김병숙	김율리아	김혜원	박영자	손병윤	엄경용	윤명자	이상분	이은정	임명주
곽중섭	김병이	김은순	김호중	박영진	손상운	엄순덕	윤미숙	이상일	이인용	임민아
곽태호	김상희	김은영	김효선	박영철	손윤모	여효정	윤선미	이석순	이재숙	임상무
곽화숙	김석용	김은옥	김희숙	박용숙	손주영	오나래	윤성업	이선근	이재춘	임석수
구경모	김석준	김은희	김희순	박은경	송경신	오성애	윤시림	이선영	이정림	임순영
구현민	김선	김인배	김희영	박정숙	송미경	오승목	윤옥자	이선희	이정민	임승옥
권귀옥	김선희	김인순	나승경	박정자	송선옥	오은미	윤유석	이선행	이정연	임영규
권도연	김성천	김정미	남기란	박준희	송순미	오은환	윤재성	이성우	이정현	임영옥
권분연	김소옥	김정선	남윤건	박지현	송윤경	오정애	윤혜련	이세영	이정희	임영희
권선미	김소정	김정숙	남일현	박진휘	송은주	오창선	윤혜연	이소연	이제식	임정화
권진	김수연	김정순	노치권	박참슬	송주라	오태정	윤혜정	이수진	이주안	임지원
권태영	김수진	김정옥	동경자	박현숙	신상수	오해영	윤홍자	이수현	이주원	임태선
권혜란	김숙	김정자	류영선	박형호	신상희	오현정	이경애	이숙희	이종길	임현정

임 화 용	전 자 영	정 선 영	정 윤 희	조 영 심	주 하 나	최 미 수	최 지 현	한 나 일	허 정 미	황 규 택
장 년 수	전 정 민	정 설 령	정 은 숙	조 영 옥	지 경 미	최 복 희	최 진 옥	한 명 숙	허 정 연	황 숙 자
장 복 념	전 종 성	정 성 진	정 의 정	조 영 이	진 기 순	최 솔	최 진 희	한 민 옥	허 준	황 승 옥
장 원 실	전 주 리	정 성 희	정 인 경	조 영 자	진 정 숙	최 수 미	최 해 인	한 시 학	허 희 선	황 애 현
장 윤 교	전 주 윤	정 수 원	정 재 순	조 옥 현	차 경 자	최 안 나	최 홍 원	한 옥 자	현 복 자	황 우 순
장은유	전 주 희	정 수 진	정 정 순	조 인 숙	차 윤 수	최 연 옥	최 희 순	한 인 숙	현 정 일	황 윤 서
장 재 경	전 춘 실	정 수 훈	정 향 란	조 정 순	차 혜 경	최 영 립	표 순 분	한 재 범	현 진 호	
장 재 연	정 광 영	정 순 남	정 홍 숙	조 현 숙	차 효 경	최 영 주	하 광 희	한 정 열	홍 도 경	
장 재 원	정 금 록	정 시 몬	정 희 정	조 형 준	채 경 숙	최 영 혜	하 동 기	한 진 규	홍 문 숙	
장 후 남	정 남 숙	정 애 경	조 경 배	조 혜 옥	채 경 화	최 윤 숙	하 애 란	한 진 선	홍 순 필	
장 희 윤	정 대 진	정 연 숙	조 규 하	조 휴 동	채 성 희	최 윤 혜	하 재 철	한 평 섭	홍 은 정	
전 세 현	정 미 다	정 연 택	조베로니카	주 비 호	채 현	최 은 경	한 구 병	한 현 숙	홍 재 술	
전 수 진	정 민 경	정 영 진	조 성 희	주 은 희	최 경 옥	최 일 혜	한 귀 자	허 남	홍 진 숙	
전 영 미	정 민 희	정 우 진	조 영 광	주 재 로	최 기 종	최 제 원	한 기 철	허 미 숙	홍 필 순	

김나현(미소회)	수지사랑의예물	부산교구 청학성당
서지현(윤지원)	요셉의원	서울대교구 강일동성당 가톨릭성서모임
(주)유나이티드	유일화사	서울대교구 목동성당 빈첸시오회
(주)인동FN	제이앤지조이엘리	서울대교구 발산동성당 해외선교후원회
(주)지후	청학119구조대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학교사목부
(주)한양정밀	해사고등학교	서울대교구 한강성당
(주)홍진경	가톨릭성서모임소식지팀	수산교구 이기대성당 빈첸시오회
ABC동호회	95차창세기연수	수원교구 백석동 성당 빈첸시오회
골든벨통상(주)	97차이사야연수	수원교구 범계성당 21구역
구덕신탁	98차마태오연수	수원교구 범계성당 52구역
나보파스장학회	서울5지역	수원교구 범계성당 57구역
대방수산(주)	서울지역협의체정릉8지역	수원교구 범계성당 빈첸시오회
로이드선급협회	서울지역협의체흑석6지역	수원교구 범계성당 초등부주일학교
리치로지스틱스 이근	흑석동성서모임사랑의예물	재단법인 바보의나눔
마태오성서모임봉사자	안상인 신부	천주교 대구대교구 사회복지회
명지리오카페	이경상 주교	청주교구 분평동성당
문우당서점	이기현 주교	춘천교구 임당동성당 빈첸시오회
부페아리스	홍인식 신부	한국성모의 자애 수녀회
성모자매회서울지부	부산교구 삼산성당 현화회	
(필리핀현지방문시후원)	부산교구 안락성당 사회복지분과	이외 다수의 익명 후원자
성서와함께(여기사마리아사람)	부산교구 안락성당 해외선교후원회	
수지그르다	부산교구 주교좌 남천성당	

국 내

영원한도움의성모의집 해돋이공부방

49032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돋이3길 412 (청학동)
T. 051-416-1361

- 김재숙 빅토리아 수녀
M. 010-8977-0243

H.O.M in 수지

16824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로 163번길 10
(동천동)

- 차덕희 알벨토 수녀
M. 010-2920-2746

H.O.M in 사강

18550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송산포도로 129

- 최정희 루치아노 수녀
M. 010-7617-0900

영원한도움 평화센터

03076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35길 51 (혜화동)

- 이선중 로마나 수녀
M. 010-8701-0369

해 외



베트남 VIETNAM

호치민

HO CHI MINH

174/35 Tam Châu, Tâm Bình, TP Thủ Đức,
TPHCM 71300 VIETNAM

- Sr. Mariann Kim, SOLPH(김미라 마리앤 수녀)
M. +84 97 564 1530
E. rose-mira@hanmail.net
- Sr. Su Eun Gemma Jang , SOLPH
(장수은 수은젬마 수녀)
M. +84 97 504 5954
E. sueungemma@hanmail.net

다낭

DA NANG

Số 20 Trần Hữu Độ Phường khuê Mỹ, TP Đà
Nẵng, 550000 VIETNAM

- Sr. Maririta Kim, SOLPH(김희자 마리릿타 수녀)
M. +84 90 378 6101
E. kimheeja1214@gmail.com
- Sr. Clara Back, SOLPH(백미현 글라라 수녀)
M. +84 78 949 1860
E. cl583@hanmail.net



카자흐스탄 KAZAKHSTAN

탈디코르간

TALDYKORGAN

Katolic Church Biazhan sal 145 Taldykorgan
140008, KAZAKHSTAN
T. +7 7282 245 002

- Sr. EunyongTheresa Oh, SOLPH
(오은영 은영데레사 수녀)
M. +7 775 960 2731
E. eyt633@hanmail.net
- Sr. Salesia Han, SOLPH(한성숙 살레시아 수녀)
M. +7 702 196 1770
E. hansalesia@daum.net
- Sr. Jeesse Shin, SOLPH(신민옥 이새 수녀)
E. jesse594@hanmail.net



페루 PERU

칸가리

CANGARI, HUANTA-AYACUCHO

Las Hermanas de Nuestra Señora del Perpetuo Socorro Apartado 10, Huanta Ayacucho, PERÚ

H. cafe.daum.net/solph-peru

E. cangariperu@hotmail.com

- Hna. Marie Hucco Kim(김향련 마리후꼬 수녀)
M. +51 958 733 136
E. mhucco07@gmail.com
- Hna. Clarisa Lee(이순옥 클라리사 수녀)
M. +51 937 411 504
E. rociocielo811@gmail.com

비야 엘 살바도르

VILLA EL SALVADOR, LIMA

Las Hermanas de Nuestra Señora del Perpetuo Socorro Apartado 0066, Lima 35, PERÚ

T. +51 1 292 2327

H. cafe.daum.net/solph-peru

E. villaperu@hotmail.com

- Hna. Mari Joseph Kwak(곽호임 마리오셉 수녀)
E. hoimkwak@gmail.com

- Hna. Lisa Song(송선영 리사 수녀)
M. +51 958 736 605
E. lisa0737@naver.com

리마 선교센터

CANTO GRANDE, LIMA

Jr.Carlos De Los Heros 738 Pueblo Libre 15084, Lima, PERÚ

- Hna. Speranza shin(신영애 스페란자 수녀)
M. +51 920 753 030
E. smsprz@hanmail.net
- Hna. Immanuel Park(박정호 임마누엘 수녀)
M. +51 986 501 518
E. manuel592@hanmail.net



필리핀 PHILIPPINES

나보따스

NAVOTAS

San Lorenzo Ruiz Parish(Tahanan ni Maria) Phase 1-C Kaunlaran Village, Navotas 1409 Metro Manila, PHILIPPINES

T. +63 2 8652 7714

H. cafe.daum.net/solphphilppin

- Sr. Gabriela, SOLPH(김영선 가브리엘라 수녀)
M. +63 969 174 6992
E. gabi59@hanmail.net
- Sr. Judith Joung, SOLPH(정명숙 유딧 수녀)
M. +63 939 332 4146
E. ju395@hanmail.net
- Sr. Luce Kim, SOLPH(김민정 루체 수녀)
M. +63 960 554 1272
E. kimluce639@gmail.com
- Sr. Josephine Choi, SOLPH(최지영 요세핀 수녀)
M. +63 928 421 0722
E. josephine.657@daum.net



조향순 소피아, 인제 자작나무 숲 Gangwon-do, Korea 2012

후원 문의

국 내

02706 서울시 성북구 솔샘로15라길
2-18 (정릉동)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T. 02-2171-1657

한진선 요셉데레사 수녀
M. 010-2082-6035
E. srjthan@hanmail.net

- 후원자 중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분은 연락주세요.

미주지부

Catholic Bible Life Movement U.S.A
6751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1 U.S.A.
T. +1 714 521 1345

Sr. Emma Jeon, SOLPH
(전배경 엠마 수녀)
M. +1 714 383 3585
E. emma2171@hanmail.net

- 미국에서 후원하기를 원하는 분은 미주지부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후원금 송금

국내 선교 후원금

하나은행 121-038659-00305
국민은행 036137-04-005886
신한은행 100-027-677864

예금주 (재)영원한도움의성모회

해외 선교 후원금

하나은행 121-910004-74004
국민은행 036137-04-001127
신한은행 140-006-010754

예금주 (재)영원한도움의성모회



**SISTERS OF OUR LADY OF
PERPETUAL HELP**

02706 서울특별시 성북구 솔샘로15라길 2-18
2-18, Solsaem-ro, 15ra-gil, Seongbukgu Seoul 02706, Rep. of Korea
T. +82 2 2171 1500 | F. +82 2 2171 1629